

최연의 산 이야기 <35> 소백산 3



부석사에서 바라본 소백산 연봉들.

# 겹겹 산줄기 웅장하고 부드러워

지정학적으로 영남(嶺南)이라고 하면 백두대간의 남쪽지역 중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유역인 경상도 지역을 일컫는데 사림(士林)에서의 영남학파(嶺南學派)는 소백산 아래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경상북도 지역의 남인(南人)을 의미한다. 그리고 경상남도에는 평생 출사(出仕)를 하지 않은 영원한 재야사림(在野士林)인 남명(南冥) 조식(曹植)을 태두로 하는 북인(北人)들이 지리산 남동쪽 자락에서 자리 잡았다.

북인들은 남명 조식의 영향을 받아 임진왜란 때 많은 문하생이 의병으로 참여하였고 임란 이후 이들이 중앙 조정(朝廷)에 잠시 중용되었으나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다시 노론(老論)의 정권이 들어서서 더 이상의 정계진출은 없었다.

소백산 아래는 풍기고을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감결(鑑訣)>에서는 이곳을 난세에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심승지(十勝地) 중에서도 최고의 길지(吉地)로 꼽았다. 풍기는 소백산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들에 둘러싸인 분지형(盆地形)의 땅이다.

풍기에서 바라다 본 소백산은 서쪽과 북쪽엔 국망봉에서 도솔봉에 이르는 연봉들이 병풍처럼 솟아 있고 동쪽과 남쪽엔 아늑한 산줄기들이 겹겹이 펼쳐져 있어 웅장하면서도 사람을 위압하지 않는 부드러운 형상이다.

소백산의 이런 모습을 이중환은 <택리지(擇里志)>에서 "마치 구름이 겹겹으로 엉기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다. 동쪽과 남쪽으로 부드럽게 뻗어나간 산줄기

는 흡사 미풍에 고요히 출렁이는 잔물결과 같은 느낌을 주는데 평화로운 기운이 넘쳐난다. 부석사(浮石寺) 안양루(安養樓)에서 바라보는 소백산 연봉들처럼.

남사고의 <산수십승보길지(山水十勝保吉之地)>에는 "여러 산 중에서는 소백산이 가장 으뜸이고 지리산이 그 다음이다"라고 소백산을 지리산보다 한수 위에 두고 있으며 "태백산과 소백산의 남쪽에 있는 풍기와 영주, 서쪽에 있는 단양과 영춘, 동쪽에 있는 봉화과 안동은 산수(山水)의 기(氣)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좋은 곳"이라고 했다.

이렇듯 심승지 중에서도 가장 길지이면서 복지인 풍기고을도 한 가지 흠결이 있는데 도솔봉과 연화봉 사이 즉 죽령(竹嶺)이 움푹 파여 매서운 서북풍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풍수학에서는 산의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가 움푹 들어간 모양을 요풍(凹風)이라 하며 흉하게 생각하였다. <감결>에도 "왕의 수레가 풍기 남쪽으로 가면 약간의 화가 미치리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흥건적의 침입 때 공민왕이 죽령을 넘어 안동을 거쳐 대구로 피신하였다.

그런데 풍기 고을 중에 금계리에서는 도솔봉과 연화봉 사이의 요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소백산 두 물 사이에 있는 풍기 수리바위(車岩) 금계마을(金雞村)'은 감결의 심승지 중에서도 첫 번째로 손꼽히고 있다.

수리바위는 '신이 깃든 바위(神岩)'를 뜻하는데 도교의 바위신앙과 습합된 것으로 보이고 금계(金雞)는 '빛을 내는 닭'이란 뜻으로 '숫대' 위에 앉아 있는 신조(神

鳥)를 일컫는 말이다. 양수머리는 두 물길이 합쳐지는 곳인데 소백산 계곡의 물길과 죽령계곡의 물길이 금계촌에서 만나게 된다.

양수머리의 '머리'는 두(頭)가 아니고 '제사 지내는 곳'이며 '거룩한 숲'을 말한다. 머리는 원래 신이 깃든 곳으로 신전(神殿)이라는 뜻이고 합수머리는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신성한 성역(聖域)이었다. 산수회포(山水回抱) 즉 산과 물이 서로 안고 도는 곳에서 음양의 기운이 잘 융합된다고 보며 바로 그곳이 길지(吉地)가 되고 복지(福地)가 되는데 바로 금계촌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 자주 인용되는 <정감록(鄭鑑錄)>과 <감결(鑑訣)> 그리고 <비결(秘訣)>등의 책에 대하여 그 내력을 알아보고 넘어가고자 한다. 정감록은 필사(筆寫)하여 전해 내려오는 책인데 금서령이 내려져 발각되던 극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필사작업은 은밀하고도 조심스럽게 행하여졌다. 그래서 원본이 없어 그 내용의 진위를 알 길이 없고 현존하는 필사본(筆寫本)들의 내용도 모두 다르다. <정감록>은 <감결>을 비롯해 <삼국산림비기(三國山林秘記)> <동국역대기수본궁 음양결(東國歷代氣數本宮 陰陽訣)> <오백논사비기(五百論史秘記)> <도선비결(道仙秘訣)> <무학대사비기(無學大師秘記)>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 등 여러 편의 예언서(豫言書)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핵심은 <감결>이다. <감결>은 '정감(鄭鑑)의 비결(秘訣)'을 줄인 말인데 '심승지'에 대한 모든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 조급한 마음을 넘어서

입구를 박음질한 사료 포대의 실을 풀어 세워놓았더니, 넘어서 알갱이들이 땅바닥에 쏟아졌다. 곁에 짓은 두 손으로 슬슬 쓸어모아서 담았으나 땅바닥에 깔린 알갱이들은 손으로 한 알 두 알 집어서 그것에 담아 포대에 넣는 수밖에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속속 빗자루로 쓸어서 개에게 줄 수도 있었으나 흙범벅이 된 사료를 준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먹는 음식인데 흙과 뒤섞인 걸 줄 수가 없었다.

참, 손만 한 도구가 없다. 콩알만 한 것들을 한 알 한 알 주워서 그것에 담는 일에 알맞은 도구가 있었는가? 손의 예민한 감각과 정교한 움직임에 스스로 놀라워하는 시간도 잠깐. 뭘까? 생각 이상으로 넓다. 수북하게 쌓였던 곳만 언뜻 보았는데 살펴지며 튀어나가 보이지 않던 알갱이들도 외면하지 않고 좀더보니 작업반경이 의외로 넓다. 알갱이들이 퍼져나간 넓이가 반경 2.30cm정도로 보이더니 배는 뭉치다. 주위도 주위도 좀체 주운 티가 나지 않는다. 금방 하기가 싫어진다. 이걸 계속 주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빗자루로 쓸어담아서 넓은 그것에 주면 개가 알아서 골라먹지 않을까? 개야 흙 좀 먹는다고 뭐 어떨까? 고기라도 주면 땅바닥에 굴리며 흙을 무슨 양념장인듯 발라 먹지 않던가? 좀더 않으려는 쪽으로 움직이는 마음이 맘에 들지 않아서인지, 줄어들지 않는 흙 위의 사료에 대해 조급증이 발현된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한다.

김을 땀 때의 마음이 꼭 그랬다. 호미로 흙을 파면서 풀을 뿌리째 캐어내 땀배에 말라죽게 만들며 나아가는 일은 쉽게 진척이 되질 않았다. 해도 해도 눈앞은 여전히 푸르른 풀밭이었다. 등 뒤를 보면 지나는 흔적은 왜 그리 작은지. 햇살은 노랫말처럼 '쟁쟁' 내리쬐이며 나를 놀리고 땀은 자꾸만 눈으로 파고들며 앓을 막았다.

### 가다보면 어느새 김을 맨 부분이 남아 있는 땅보다 넓은 지점에 가 있음을 보게 되곤 했다

한 고랑을 어찌어찌 끝까지 나가봐도 손을 안 댄 고랑이 많기도 많아서 좁은 밭이 별관처럼 다가왔다. 한낮의 발에 쪼그리고 앉은 가슴에 울화통이 치밀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추시고, 그만 철퍼덕 주저앉아 땅을 헤집으며 노는 듯 하면서 호미질을 하다보면 시간은 바빠 흐르는데 김을 매야 할 밭은 푸르고 푸르러,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을 하며 밭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때 내 곁엔 아내가 있었다. 뒷발을 일구는 정도로 규모를 줄여, 농사를 짓는다고 얘기하기도 뭐시기만 상황이 되면서는 그에 김을 매는 건 아내의 일로 넘겼다. 아낸 김매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사료를 한 알 한 알 주는 일은 김을 매는 일과 같았다. 내가 어눌하게 일을 처리하다 일어난 일이니 누굴 시킬 수도 없고 그 무엇을 탓할 수도 없었다. 그냥 놔두거나 쓸어서 버릴 수도 있으나 그런 것은 '인생 그만 살겠다' 말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가슴 안에서 무엇인가 부풀어올라 폭발한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숨을 깊이 마셨다가 내쉬며 생각한다. 세상에 '꼭' 한순간에 곧바로 이뤄지는 일이 어디 있으랴! 꿈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현실에서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나는 살아온 것일까? 빨리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대충 눈가림으로 넘어가는 짓이 아니던가? 대개의 일들은 같은 조건이라면 그 나름대로 걸리는 시간과 작업량이 정해져 있다. 거칠 것 다 거처면서도 빨리 되는 일은 생각처럼 흔하지 않다. 적정 시간보다 빠르게 그리고 적절한 작업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면 부실과 부작용이 뒤따르는 건 당연하다. 그걸 또 외면하고 싶었던가?

나아가는 생각도 없이 가다보면 어느새 김을 맨 부분이 남아 있는 땅보다 넓은 지점에 가 있음을 보게 되곤 했던 기억을 나는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시시때때 조급증을 보이고 있으니 나도 가야할 길이 먼 인간이다. 천천히 가야 한다. 지나온 길을 확인하는 버릇도 버리고 가야할 길을 재어보는 버릇도 버리고, 목적인 만큼 이루지 못했다 해도 발길을 멈추지 않았으니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삶. 그 길을 가야겠다. 시인



##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蓆草)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2세트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햄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동글게 피부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 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